

사설

선거연기 학생대중의 의견인가

학회가 또다시 소란해질 조짐이다. 다음인 제25대 총학생회 선거가 3월로 연기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파문은 예상외로 크게 번지고 있다.

총선위의 결정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수렴의 절차를 문제제기하며 11월선거를 촉구하는 몇몇 대외부의 내용은 타당한 부분이 많다. 학생들의 자주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제1차 학생기구들의 선거는 명확히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 학생회 임원들은 지난 90년 9월의 3월선거절차에 따른 사업 준비의 미흡, 전반적인 조직체계의 이원화로 학생회사업이 침체됐던 상황을 기억한다. 이와같은 총선거절정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종합해 볼 때 총선위가 표명한 대선기간 중 학생회 체계 이원화로 인해 대선 및 투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다.

총선거를 통해 92년 학생회사업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회의 당당한 주인인 학생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쉽게 연기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요즘 학내에서 생점이 되고있는 총선거연기 논란은 단연히 전대 학생들의 자주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지 선거연기라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총선위의 연기결정논리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대선준비는 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고 올바른 선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백만정년학도의 구성이라 할 수 있는 전대들의 대부분 학교가 조기 선거시후 이 속에서 대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단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둘째, 90년 11월 선거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조직체계의 총선준비 이원화를 통한 차기 학생회사업의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3월까지의 공백기간을 비상총학생회에 일임했을 때 오히려 학생회체계가 힘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지난 87년도와 88년도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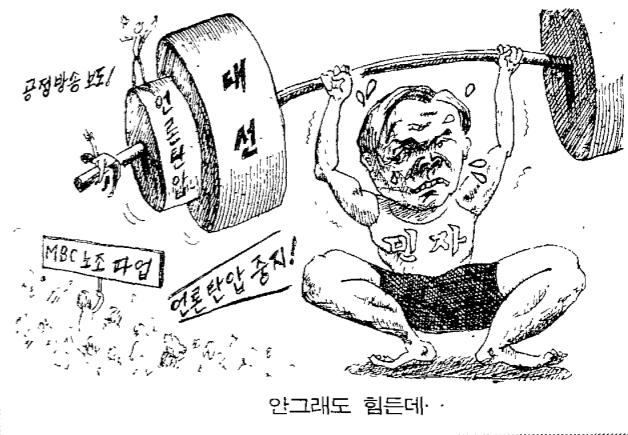
셋째, 학생회선거과정의 오류점이 흔히 정파간의 정쟁대결로 표면화되고 매년 이에대한 극복방안이 부재했다. 적어도 올해 선거만큼은 이를 극복하는 선거의 장을 만드는 학생회자체들의 의지가 보여져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과정과 절차의 이해부실을 따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회자체가 인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칙에 근거한 선거연기에 대한 유권해석 차이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유권해석에 관해서는 총대중앙위에서 의사수렴의 과정을 거친후 대외적인 공표수속에서 결정했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번결정의 해결의 방향을 찾아 본다면 총선위의 조속한 소집과 문제의식 공유, 학생대표의 소집 및 공청회를 통한 학내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의사수렴을 공명하는 공명대 형성의 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해 본다.

東國漫評

이종필



안그래도 힘든데...

정론지 견지하며 대중성 확보

대학신문 위기...이념문제로 치부하는 건 '부당' 제도언론, 상업성 강조 저널리즘 퇴조

인간성은 인간 '잠재'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심각한 문제들이 폐간되고 있다. 해 사시 월간지들마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예산과 원시적인 신문제작기술을 갖고 아마추어 대학신문인들이 제작하는 대학신문이 설 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모든 제도언론이 화려하고 시각적인 기사들, 가변부 부드러운 기사들, 그리고 개인과 가족 이기주의에 부응하는 기사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학교생활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신문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까?

만약 그렇게 제작한다면 학생들의 호응은 높을 것이 틀림없다. 학생들의 호응이 높으

면 그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인가? 감히 단언컨대, 학생들의 호응만을 놓고 따지자면 스포츠신문을 따라갈 신문이 없다. 그런 대학생들의 지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생활환경과 매체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학신문은 가능한 한 많은 독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신문의 내용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정도로 필사적이어야 할

소는 물론 더욱 막박하다. 이러한 연구소의 근본문제라 할 수 있는 재정적 궁핍과 연구소마다의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술기구를 관리하는 전문학술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서울대는 지난 25일 이같은 연구비와 학술경비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부연구비 관리주체를 대학본부와 단과대 정도로만 규정하는 '연구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 연구규수 개인이 따로 관장할 것을 관리담당자가 직접 관리, 집행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본교도 연구비 관리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신학령'이라는 명목으로 한층더 치우치는 연구비 지원을 조달할 수 있고 학교권리도 인내 기업체의 지원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로운 연구활동의 안정적인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제기한 문제와 대안마련을 강구하여 연구소 활동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대학사회에 관련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를 가리는 풍토도 개선되고 '연구'를 대학을 위한 '판관'도 마련될 것이다.

이 연구규수 개인이 따로 관장할 것을 관리담당자가 직접 관리, 집행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본교도 연구비 관리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신학령'이라는 명목으로 한층더 치우치는 연구비 지원을 조달할 수 있고 학교권리도 인내 기업체의 지원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로운 연구활동의 안정적인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제기한 문제와 대안마련을 강구하여 연구소 활동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대학사회에 관련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를 가리는 풍토도 개선되고 '연구'를 대학을 위한 '판관'도 마련될 것이다.

이 연구규수 개인이 따로 관장할 것을 관리담당자가 직접 관리, 집행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부설연구소 학술연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간판만 내건 '연중 휴무상태' '학술업무 전담부처 설립으로' 기업체 지원 적극 유치해야

대학 부설연구소 부용론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대학연구소가 제 지리를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학술연구비가 풍족하다는 일부 명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 부설연구소는 절저레식의 1회성 행사 차원이 학술연구의 전부인 풍토이다. 오히려 이러한 학술연구 부진이 관성화돼 별대안없이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본교 연구소 학술연구활동을 점검하고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학의 핵심은 연구에 있다. 대학의 연구기능은 인재양성이라는 교수기능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내재산의 토대이며 사회화원기능의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본교뿐 아니라 오늘날의 대학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연구하는 풍토는 이미 우리대학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이다. 이러한 생각은 연구단을 위해 설치된 대학 부설 연구소의 '절저레식' 연구 활동으로부터 기초한다. 현재 본교의 경우 부설연구소는 서울캠퍼스 19개, 경주캠퍼스 3개로 총 22개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내 유일의 대학부설 불교문화 연구기관 불교문화연구원을 비롯

하여 인문과학, 기초과학, 자연과학 분야까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이들 연구소는 대개가 일년에 한번 씩은 학술 세미나나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등 연구결과로 내세우는 전무라고 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풍토의 문제는 도처 곳곳에서 발견된다. 연구소마다 간판만 내걸은 채 연중 휴무(?) 상태인 듯한 곳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열의를 가진 연구소에는 학교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학교당국으로 부터 연구지원비와 연구원을 정식 발령받아 운영되는 곳은 불교문화연구소와 한국문화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정도이다. 이 때문에 이들 연구소 활동은 그

나마 활발한 편에 든다. 불교문화연구소의 경우 각종 학술강연회와 세미나를 치르고 있으며 국내외 여학회와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일 불교학술회의도 진행하는 등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정책적 지원없이 연구소 담당교수의 로비로 기업체나 학술재단과 연계해 연구의뢰를 받아내고 연구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여타의 연구소 실정에는 추대다. 투자에 따른 연구효과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업체 지원구조 때문에 연구소의 자율성이 보장되기에 따라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학사적으로 연구의뢰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종로 조성도 어렵다. 더구나 기업체의 대학지원 현황도 상위 일부 대학에 쏠려 있어 대학사의 전반적 균형과는 무관한 재정지원체이라는 점도 본교로서는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연구소 자체의 문제는 연구원의 수급을 학교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생이나 조교생으로서 연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자적이고 꾸준한 연구 활동은 더욱이 힘든 실정이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연구원 수급의 문제와 연구비 조달문제 이 두 개인 연구소(?) 수준으로 떨어진 연구소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기대하기란 현실상으로는 어렵다. 대학이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기업체의 지원도 받기 힘든 기초과학분야나 순수과학분야연구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 - 동부로 오십시오. 새롭게 다가오는 21세기 - 새시대의 주역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동부와 함께 꿈의 21세기를 준비할 젊음을 찾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2. 전형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모집부처: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법학, 행정학, 이문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금속공학, 화학, 화학생물공학, 공업화학, 고분자공학, 전산학.

5. 기타, 6. 동부그룹 인력관리위원회. 동부그룹 인력관리위원회. 동부산업, 동부제강, 동부화학, 동부건설, 동부고속, 한국자동차보험, 동부에트나생명보험, 동부증권,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창업투자, 동부엔지니어링.

동부그룹 인력관리위원회

동부산업, 동부제강, 동부화학, 동부건설, 동부고속, 한국자동차보험, 동부에트나생명보험, 동부증권,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창업투자, 동부엔지니어링

"진보세력 흡집내기"의도 커

분석

김낙중 간첩사건

36년동안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간첩 김낙중

9월 7일의 안기부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일간지들은 이 사실을 사회면 폭으로 다루었고 민중운동단체들은 조작이라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과연 안기부 발표는 사실일까? 민중운동단체들은 단호하게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는 안기부발표의 사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사실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간첩행위의 초점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북한의 공작극을 벌여서 민중당에 7천9백만원, 진국구후보 등록비 2천5백만원, 가까운 사람들에게 1천8백만원, 심금섬씨에게 7천만원등 2억2천여만원의 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김낙중씨는 북한의 공작극으로 민중당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일까?

우리가 확인해본 바로는 먼저 민중당의 선거자금 부분인 7천9백만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준 활동비 부분인 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다(물론 액수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진국구 후보 등록비 2천5백만원은 당연히 지출된 돈이다. 심금섬씨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평화통일연구소 운영위원은 "평소

- 안기부는 7일 김낙중 간첩사건을 발표하는데 이어 28일
- 인사형 장기표씨와 부인 조부하씨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
- 반(불고지) 혐의로 구속했다.
- 재야 및 국민여론은 간첩사건을 발표, 공안정국을 조장하
- 는 정부에 대해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이에 김낙중 간첩사건의 배경과 의혹을 분석하며 최근
- 잡지지 증가하는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사건의 의도를 분석
- 해보는 의문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보법위반 폐지 논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김낙중 장기표씨 등 최근 국보법위반 구속사건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는 대선시기에 재야의 도전성을 훼손하면서 안기부 존재 근거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진은 7일 안기부로 되돌아가는 김낙중 전 민중당 공동대표

큰사건으로 부각시키려는 언론플레이 노골화 안기부 발표 내용 의혹 투성 발표시기... "대선 위해 이쯤이 적당" 고려한 듯

1993년 11월 17일 선거가 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안기부가 김낙중씨의 재산을 부풀려서 발표했거나, 김낙중씨가 개인재산 이의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입수한 간첩과 부동산 문서들을 대조해 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문제이다. 김낙중씨의 간첩의 구속사유 중에 또하나가 '민중당의 창당과정에 참여해서 당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했다는 혐의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 김남기 여사는 "에 아버지는 공동대표를 안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오씨가 쫓아다니면서 당대표를 맡으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형 장기표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김낙중씨는 민중당에도 총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균 세배에 한 번 꼴로 회의에 참석했다"며 김낙중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민중당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면 여기에도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 민중당 관계자들은 "김낙중

나케 큰 간첩사건이다"며 뭔가 있는 사건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사건을 "36년간 암암리에 고정간첩"으로 발표하면서 '사상 최장기, 사상 최대의 공작극'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안기부의 언론플레이에는 안기부의 생존권에 관련된 고민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하는 의문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가에는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의 축소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다. 남북교류의 중대, 중구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시점에 맞게 현행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게 일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개혁정치의 깃발을 들고 나온 김영삼 후보진영에서도 나름대로 개혁적인 정치공약을 준비하며 그 내용중에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었다.

국내 수사권을 없애 대외정보에 기능을 국한시키고, 타기관에 간섭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근거인 정보조정 감독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안기부 예산을 타부처에 은닉하고 예산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도록 예산회계특별법을 손잡고,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두어 안기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등등, 구체적인 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손질을 할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기부는 '생존'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사건을 발표할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기라는 점이 이러한 의문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다. 안기부는 올 11월말에 월북해서 간첩행위를 한 죄로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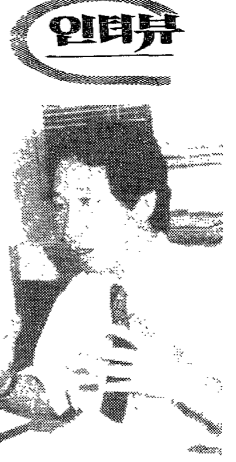
된 박영희씨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낙중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수근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박영희씨도 조사를 받을때 조사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민중당과 김낙중씨에 관련된 질문이었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안기부는 그때 김낙중씨에 대해 질문한 혐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 수사 발표에는 그뒤에 7개월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확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건 발표를 했다. 그러면 안기부는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던 것일까? 앞서 말한대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고조되는 안기부법의 폐지와 국가보안법의 폐지논의에 썩기를 박고 스스로의 생존의욕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맞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들이 이번 사건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발표의 정치적 동기나 배경에 대해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성희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기자>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김근대 씨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지난 19일 4일 준비위를 결성하는데 이어 26일 오후 3시 40분 잠여단체 회원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총회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5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제1차로 4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결성된 국민회의는, 전국연합이 자주·민주·통일을 구현하는 정치조직체의 대표인 반면 대선에 서로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 정치조직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는 불공정 방송, 행정·관선선거, 안기부 개입등으로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한 제반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대통령의 탈당선언과 중립 내각 구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어떠한가.

= 이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부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다시말해 Y의 동격적인 차별과 전략에 대한 노

국민회의내 후보전술 논의않기로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되선 안돼"

이 참여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중조직이란 점에 우선 의의를 둘 수 있다.

국민회의는 또한 △정권교체 △민주정부수립을 사업목표로 △국민 주체성의 확립 △민주개혁 추진 △공정선거 개혁 △지역분할주의 극복 △민주세력연합 실현을 주요 5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0여개 참여단체가 대선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공통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낮은 차원의 성과보다 '단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김근대(45)씨를 만나 국민회의의 과제와 대선투쟁전술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국민회의의 대선방침과 후보전술은 어떠한가.

= 후보전술은 단일인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 의했다. 87년 대선과정에서나 전 국민회의 후보전술 논의과정에서 참가단체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불신과 분열양상이었던 점을 고려, 국민회의는 전술차이를 보이는 제 단체의 공동투쟁을 추진하는 낮은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사업과 3개의 특별대책위원의 역할은.

= 특별대책위는 언론대책위, 지자체대책위, 공정선거특별위

의 반격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또 국민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제2의 전두환이 되지 않으려는, 퇴임 후 안전과 구도의 해설도 가능하다. 문제는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당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재야 또한 이 측면을 명확히 파악, 대선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정부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가.

= 민주정부는 철저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데, 선거를 통해 권력교체가 가능한 사회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정치법, 안기부, 편파, 예속제도 등을 통해 여당의 지지를 이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당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 우리의 걱정이며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는 아직 없었다.

▲대선과정에서 학생운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 요즘 대학생들의 문화가 개인생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공익적 일을 빛기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표출되는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50%이상의 국민이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 반응을 보였는데 대학생들이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부동층의

표현방향을 가능하리라 본다. 선거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커다란 권리이며 의무이다. 우선 학생운동 활동가는 선포차원이 아니라 이들 학생들의 고백을 듣고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92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 사실 힘들다. 그러나 최근의 민주내분은 '승리의 확산'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다만 재야세력의 단결력이 87년으로 소급하는 것은 치명적 손실이 될 것이다. 또 지배세력이 유혹하는 지역주의나 최근 간첩사건을 통해 재야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일련의 의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대선에서의 '단결'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 먼저 대립되는 의견을 상호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단일안을 확정, 이에 부응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는 단순히 '다수결 원칙'을 뜻하진 않는데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의 조정에 소수의견의 부분합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직의 독자성만을 부각해 지위를 얻으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중을 위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병민 기자

동약로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중 가장 큰 행사로 5월 임석대통령제와 10월 박정희대통령제 투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온방인의 머리에서 이러한 행사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

"우리와 오늘 농구시합 있다더라" "그래, 어디서 하는데 몇시부터야" 마치 다른 학과 얘기를 하는듯한 이 대화는 온방원 학생들의 백성에게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기장엔 선수만 있고 관중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행사로 기존의 경기위를 추월 할피해 축제형식의 대중제를 치르겠습니다"라는 총학생회의 의도와는 달리 92민주백성대중제 '밝은 웃음, 힘찬 걸음'은 기존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

를 범했다. 이번 대중제를 위해 1학기부터 실력을 길러온 각 과학생화학장들의 호응을 얻기엔 홍보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집단적 참여로 공동체임을

무관심과 답습



을 확고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대중제의 의미를 살리자면 학생은 물론 교수, 직원, 아울러 시민까지 아우러지는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이 있는 계명대의 경우 시민들과 함께 노래자

랑과 각종경기를 하면서 이웃임을 확인한다.

현재 경주캠퍼스에 재적된 학생이 1만명, 재학생만 6천여명이 되고 있다. 이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더 이상 없다. 후회할 개인주의에서 비롯한 현상이 말된다. 늦둥이 불씨가 더서도 전져 내면 썩어간다.

"아 술 고집네, 어디 술 마실 건수 없냐" 거리를 내몰린 학생들의 관심을 다시 모아야 할 때다.

학생들과 교수, 직원, 시민이 함께하는 대중제가 되려면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제까지의 경기위에서 벗어나 오락성을 가미한 민속경기, 율바른 스포츠화 경장을 위한 장터등의 기획행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강연회등 일련 행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한 한들 민들이 새파란 가슴으로 이 가을, 우리들의 관심속에 대중제를 치뤄됨이 어떨런지... 박성경 기자

우리는 아직도 그의 명성에 젖어들, 그에대한 전설을 발견할 수 없었다.

화려한 映像, 고독한 충격, 장엄한 人生!!

Van Gogh

제17회(프랑스 세자르영화제)2개부문 노미네이트 최우수감독상(장뤼크 피에르) 수상

제40회(칸-영화제)「황금종려상」수상감독의 모리스 피알레 각본·감독

간담문을 모집합니다!!

반고흐/자크 뒤트론, 미르토티/가베/안드레아스 라던, 피사/가베/제랄드 세리, 테오/베르나르도 레코, 라몬/감독/모리스 피알레, 방울/감독/마슈엘-질레 앙리, 자크 로슬로, 음악/장 베르에 뒤레

[관·투의 전극 지성관객 패수대진!!] [관·유리파 소수확인 대진 행렬!]

10월3일대개봉!!

영혼을 대위 죽음의 심지에 불을 당긴 藝術!!

이대입구 392-1199

DOLBY STEREO SR

이대입구 545 3800

The Korea Herald 직영

TOEFL 600

오전반 : 9:40 - 12:40
저녁반 : 6:40 - 9:40

GRE 2000

오후반 : 2:00 - 4:00

GMAT 700

저녁반 : 7:00 - 9:00

M.A ENGLISH

대학원 진학종합반
저녁반 : 6:30 - 9:30

통역대학원입시반

새벽반 : 6:50 - 8:30
저녁반 : 5:00 - 8:00

시사영어학원 734-2442

영어·日語·中國語·佛語·러시아어

지하철 을지로입구역(2호선) 을지서점 옆 벽화그린빌딩 TEL 757-0419-0420

대학생의 앞길을 위한

변리사 강좌

강사: 대학원 석·박사, 전문대학원 석·박사, 대학원 석·박사, 대학원 석·박사, 대학원 석·박사

※ 화요일 실시

1. 특별반: 11주 1회

2. 일반반: 5주 1회

한국 공인시험권 법학연구회 552-0634 561-9087

제2의 입시 취업 그 문제와 대책

순응형 인간 뽑기 위해 각 기업 안간힘

2) 기업의 채용방법 변화와 문제

대졸자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패턴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주요 그룹기업들의 경우, 신입사원 모집에 있어 이제까지의 그룹 일반모집의 형태에서 각 계열 기업별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취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출신에 대한 선발비율이 현저히 높고 있으며, 특수·전문인력의 우선채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유지전략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전형과정 상에서 발전되는 주요한 변화는, 종전 당락에 가장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던 필기시험 성격의 비중이 매우 약해진 반면 면접이나 적성·인성검사, 그리고 서류전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전형 절차에 학교 추천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를 잡은 인턴사원제의 급속한 확산 추세도 최근에 일고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변화된 채용패턴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호연관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야 한다. 가령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고 면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나 계열기업 차원의 모집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그 근본적 원인은 한 곳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다.

변화 일로에 있는 사원채용의 패턴들은 거의 대부분이 '순응형 인간'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최근들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의 시점은 지난 87년과 88년의 등차 대부분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도 물론 기업들은 사원 채용에 있어 신원조회와 같은 방법으로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해 왔다. 그렇긴 해도, 대학시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몰입했지만 신원조회 상에 그 기록이 남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수를 늘렸던 것. 노동자들의 심리적 화이트칼라들까지도—엄청난 역량을 흔들던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부터 진보성향의 젊은이들을 철저히 걸러내려 하는 의도가 최근의 변화를 이끌어낸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를 잡은 인턴사원제의 급속한 확산 추세도 최근에 일고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변화된 채용패턴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호연관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야 한다. 가령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고 면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나 계열기업 차원의 모집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그 근본적 원인은 한 곳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를 잡은 인턴사원제의 급속한 확산 추세도 최근에 일고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변화된 채용패턴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호연관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야 한다. 가령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고 면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나 계열기업 차원의 모집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그 근본적 원인은 한 곳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를 잡은 인턴사원제의 급속한 확산 추세도 최근에 일고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변화된 채용패턴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호연관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야 한다. 가령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고 면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나 계열기업 차원의 모집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그 근본적 원인은 한 곳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를 잡은 인턴사원제의 급속한 확산 추세도 최근에 일고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변화된 채용패턴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호연관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야 한다. 가령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고 면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나 계열기업 차원의 모집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그 근본적 원인은 한 곳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다.



△최근 확산되는 인턴제 면접. 인성·적성검사 강화는 사내 노조를 약화시키는 기업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기업의 채용방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

면접·인턴제 강화로 취업불균형 심화

우가 대부분인 기업 인턴사원제는 그동안 사회 일각의 거센 반대여론을 무릅쓰면서 확산돼 왔다.

기업들이 최근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증진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해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고수하고, 또 도입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우수인력을 다른 경쟁기업에 한발 앞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예비 신입사원'들에 대한 면담을 위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른바 '운동선'의 사내 진출을 철저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작용한 것.

이제 운동선 출신의 지학점자, 대다수의 여학생, 지방대생, 비인기학과 및 인문·사회계 전공자들은 대다수 필기시험에 의지하며 취업준비를 할 수 없게 됐고, 당분간 이들은 별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 않다.

없게 된 듯하다.

또 인턴제가 명문대, 이공계학과, 경영학과 등 인기학과 중심이어서 비명문대, 지방대, 비인기학과 등의 취업난을 부채질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회진출의 모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W출판사, E의류업체, H인문, K방송사 등 아직도 몇몇 곳에서는 이들에게 능력에 따른 완전 공개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곳으로의 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규모 광고회사, 기획사무실, 출판사, 이벤트회사 등 진출의 여지는 적지 않으며, 또 이에 대한 채용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학점자부터 학점관리를 잘 해온 학생들이나, 취업공학 전공자, 명문대학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들은 별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 않다.

심각한 취업난이 만연된 현 상황에서 이들을 이러한 조류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취업시즌이 되면 여러 기업들의 보수, 복리후생, 사회적 지명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용성 하느라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현상은 분명 치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교육정책의 전문적 방향선정의 장기적인 대책이 물론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 당장 코앞에 닥친 '교육력 실패'라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의외의 결과로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그래서 유희한 명제다.

박규철 <월간 '리포트' 기자>

앞으로 여대생 취업의 실질적 전략의 기초는 자신에게 가능한 취업처를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컨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는 앞으로 광고비즈니스업무를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서 하게 되는 A·E(accounting Executive)에서 남녀 차별없이 인재를 구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중립적이고 대행사층에는 1992년 9월 현재 약 3백10여 명의 카피라이터(Copy Writer)가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서 3분

이다. 구직자는 지금 바로 시내에 있는 김&장동의 특허 법률사무소에 영문이력서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연락을 받아 열심히 면접에 응해야 한다.

셋째로 준비의 내용을, 가고자 하는 직업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 중요하다. 스탠다드차타은행의 경우 컴퓨터 Lotus I, II,

III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거나 인문사 교역력·출판사·잡지사 인쇄·사식능력평가 레이아웃, 교정,

취업상담실 ②여대생 취업

폭넓은 정보입수·취업준비가 관건

외국어·실무능력 배양 필요

의 1인 약 1백여명의 인력이 여대생이라는 점도 고려해볼 일이다.

명키퍼를 50개정도 알기하고 가진, 아동용품, 의류, 이미지 정치광고물에 이르기까지 각분야별로 직접 카피를 써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로 하고싶은 일의 공간을 연관분야로 넓혀가는 방법이 실제 취업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변화를 즐기며 만남을 즐기는 무드에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라면 현양유동, 진로유동, 씨클K, Asian Star, 롯데 백화점등 유통회사의 매장관리직, 소비자 상담직으로 나아가거나 바잉 오피스(Buying office)의 네셔널 코디네이터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렵, 사람사이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싶고 외국어가 되어 있으면 여대생을 비교적 꾸준히 구인하는 국제 특허법률 사무소로의 취업전략도 실용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업무직, 법률상담직, 관리직, 비서직, 전산직, 전자직, 기계직, 설계직 사무직등 다양한 직위가 있는 종합국제법률사무소의 제직원은 인자리(vacant position)충원 방식의 채용, 신규이턴이 증가 했을때 채용하는 수시채용 모습

세계지정, 색채감각, 대지작업, 개관, 인쇄 매커니즘에 관한 실습과 이론적 공부와 더불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려는 채용경향의 정밀한 체크가 요구된다.

넷째로 스스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로의 집중적인 노력이 취업에 실패를 거두는 예를 많이 보여왔다. 아이디어맨으로 창조적인 일에 끌리는 여대생이라면 우리나라의 영화진흥공사나 라디오 TV방송국의 프로듀서직, The Walt Disney Asia Inc 같은 비디오·영화전문제작사에 창조적인 일에 끌리는 여대생이라면 우리나라의 영화진흥공사에 이력서로 가는 길은 공개시험을 통한 수도 있고 MBC 방송문화원, 한국 영상연구소같은 영상 아이디어전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가서 6개월이상 공부하면서 감각을 익혀서, 방송국프로덕션에서 처음하는 Assistant, A·D 등으로 활동하다가 진출해가는 단계 방식도 실용성이 높다.

구체적 능력중심의 채용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맞춘 탄력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김농주 <직업평론가>

서는 안된다.

서울·경주의 거리감은 단순히 행정업무처리의 지연뿐 아니라, 학내 행정사안이나 학교발전안에 대한 교수·학생·직원들의 의식차이를 나타내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행정업무에서 나타나는 서울·경주직원의 불만, 학생회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없으므로 인해 나타나는 이견, 관련 학과간의 교류·협력 미흡등은 "나는 동양인, 나는 운방인" "그런 너희(?) 학교 문제"라는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적변동뿐 아니라 전 행정업무의 온라인전진 구축은 현재 보이 지않게 나타나는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경주 내각교수가 종합메이 상으로 확대된다는 상황은 현재 보이 지않게 나타나는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병민 박선경 기자>

3백71km의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장기계획 경주 자체처리 시스템 개발

단기계획 전산화통한 행정서비스 확대

멀리 위치한 경주본교의 경우 3백71km의 거리로 인한 업무부담은 매우 크다. 수강신청, 성적처리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복잡한 결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업무는 보통 한달이 지나야 경주에서 집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매년 경주직원이 직접 자료를 갖고 서울출장을 가거나 서울직원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경주에 자료를 보내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강구되어 있는가. 현상은 조선시대의 파발을 이용한 통신수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서울과 다른 제증명 발급으로 인해 취업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었던 경주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89년 2학기부터 실시한 제증명발급 온라인처리가 현재 서울-경주 온라인업무의 대부분이다. 모두 8대의 단말기는 교무과의 강의시간표 작성과 수강신청 업무, 경리과의 등록금 납부 업무, 학적과의 제증명발급업무처리를 위해 3개 행정부서에만 배치돼 있다. 6년전 구입한 MV2000-DC 컴퓨터는 실용성으로 사용해도 현재 유지·보수가 안 돼 폐물이 돼버린 상태고, 경주 자체산소의 자체예산은 "없다"고 할 정도로 열악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주캠퍼스내 자체 전산화시스템 개발이 보다 중요한 과제다.

6개 단과대학, 32개 학과, 6천여 명의 재학생,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부서 업무량은 종합대 규모와 다를 바 없다. 더욱이 학과·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83년 전산통계학 과선설로 40명 증원) 대학규모나 부속시설 또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학내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LAN, 행정부서의 모든 컴퓨터를 관리·운영하는 중앙(Mean)컴퓨터실, 도서관 전산화, "노" "노" "노"에 대해 불만인 일면은 아니다.

경주 자체처리 시스템은 △막대한 비용 △전문요원에게 △프로그래밍 개발과 실용화 △시설보수·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백71km의 거리는 "한지붕 두가 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파해

제30회 학술상 작품 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무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양한 수확을 거두는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응모요령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 분야 모두 2매자 원고지 60매 내의 (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의 학술논문(대학원생 제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논문제출: 1992년 10월 4일~7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입상작 발표: 1992년 10월 27일 本紙 紙上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서울 (02) 260-3491·2
경주 (0561) 41-4132

東大新聞社

동해 낙산학사 이용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본교 동해 낙산학사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다 음

- 이용기간: 년중 항시 이용
- 사용료
가) 내부 이용자 (교직원 및 재학생)
학생 1인 1박 W1,000 (난방비: 1실 W3,000)
교직원 1실 1박 W7,000 (난방비: 1실 W2,000)
나) 외부 이용자(동문 및 외부인): 내부 이용자의 2배
- 시설규모

구분	숙소		식당	회의실	비고
	학	생			
규모	10실	14실	1	1	
난방시설	3실	7실			심야제기난방
수용능력	120~200명	70명		200명	

- 사용 신청접수 및 문의:
서울= 관재과 후생복지계 (교내: 3083, 3084)
경주= 학생과 (학생), 관재과(교직원)

관 리 처 장

학원자주의 한 길로 동국중흥의 중지 모아

"이제 하나되어 나아갈 때입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한 총장실 점거농성이 12일째를 맞이 했습니다. 오랜 농성으로 중앙대책위간부는 적잖이 지쳤으나 학우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총동업회비 강제징수에 대해 자주적 권리 회복과 학원자 주화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9월 28일 협상에 인했고, 총장님, 학생처장님과 함께 요구사항네가지를 전면 타결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우들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시작한 논의식상에서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학생과 학교당국이 학원의 주인으로 새롭게 서게되는 좋은 계기를 맞게 되어 그지없이 기쁩니다.

총동업회비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서로가 양보하며 이변을 계기로 교수·학생이 하나되어 동국중흥을 힘차게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합의를 지켜내는 것이요,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992. 9. 30

학원자주의 천리마
중 앙 대 책 위

나의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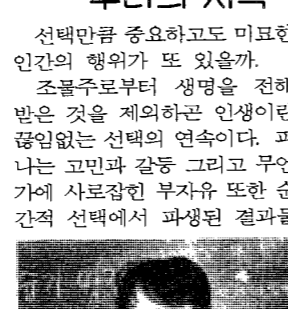


조 호 애 기자

'동대신문사'라는 한 대학신문사의 평범한 이름이 나에게 전한 '발상'하지 못한 지난 6개월이었다. 거의 내 생활의 전부를 차지한 신문사가 여느 학생들에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리 만무한 건 어쩌면 당연하다. '신호입니다'라고 울며 악쓰던 내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그 목소리가 얼마만큼 내 수습에 투영되었는지 제 확언도 못하고 그저 발수습기의 편을 도나 기쁨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단지 호칭만이 바뀐 채 수습생활을 감수하게 된다는 양을, 정기지로서의 책임은 다할 수 있을까'등등. 차라리 수습으로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전혀 엉뚱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6개월동안 전혀 변화는 겪지 못했다. 그저 스스로 서러워 할 정도로 수습을 감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임주원 내내 빨방거리고 헤매면서 겨우 만든 기사를 오보라고 눈을 부라리며 찾아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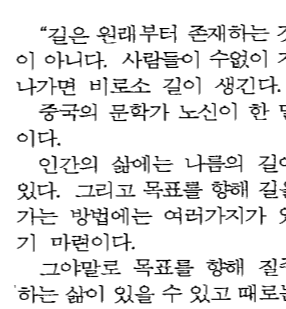


김 상 현 기자

오는 사람들 앞에서 난 지구 조해해짐을 느껴야 했다. 그런 내 눈발과 비참한 기억을 전혀 무용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다짐으로 발수습을 맞는다.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뛰어난 사람은 적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으나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적고, 똑똑한 사람은 많으나 결핵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세날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 있다. 난 여태껏 말만 하는 사람, 비판만 많은 사람, 똑똑하지만 한 사람은 아니었던가. 세날을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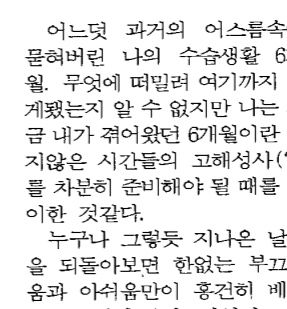


김 대 규 기자

무거운 족쇄를 재운듯한 부담감을 안겨 주었다. 쏟아지는 슬픔속에서 아무런 저항없이 몸을 맡긴 채 부터의 사색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독방에 갇힌 듯한 시간은 그 고향을 일수없이 만큼 천천히 흘러갔다. 찢겨지는 원고지를 바라보던 피로로, 내 자존심을 무장히 짓밟았던 선배들의 모습을, 전공과의 해후를 기다리는 시간

고해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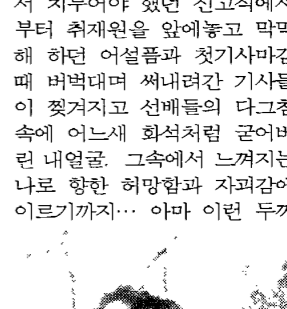


박 재 철 기자

어느덧 과거의 어느특속에 묻혀버린 나의 수습생활 6개월. 무엇이 떠날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내가 겪어왔던 6개월이란 짧은 시간들의 고해성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를 맞이한 것 같다.

누구나 그렇듯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흥건한 배에 마려워가 보이다. 나 역시 그런 감정속에서 또 한점의 곱대기를 벗기 위해 조심스레 원고지 몇장을 내었다.

이제 다듬어진 눈과 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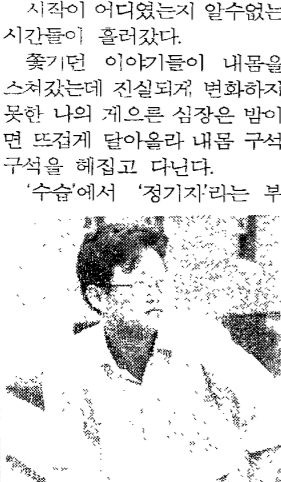


박 재 철 기자

이제 다듬어진 눈과 귀로 배우들에게 하나, 들을 바른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법칙의 무게가 있다. 더욱더 굴하지 않는 나의 목소리가, 거칠었던 나의 펜대가 필요한 듯하다.

이제 다듬어진 눈과 귀로 배우들에게 하나, 들을 바른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법칙의 무게가 있다. 더욱더 굴하지 않는 나의 목소리가, 거칠었던 나의 펜대가 필요한 듯하다.

잡초의 생명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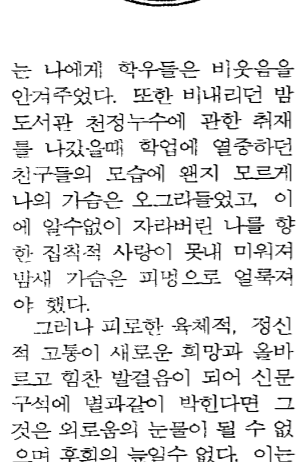


김 태 성 기자

시적이 어땠는지 알수없는 시간들이 흘러갔다. 꽃기린 이야기들이 내뿜은 스쳐갔는데 진실과 변화하지 못한 나의 게으른 심장은 발이 든 뜨겁게 돌아와 내 몸 구석 구석을 헤집고 다닌다.

'수습에서 정기지로서의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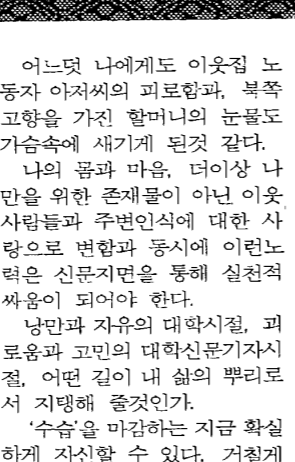
수습의 곱대기를 벗으며



김 태 성 기자

그러나 피로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새로운 희망과 울바라고 힘찬 발걸음이 되어 신문 구석에 변화가 막연하다면 그것은 의외로 의외의 눈물이 될 수 없으며 후회의 늪일 수 없다. 이는

진정한 언론전사의 길을 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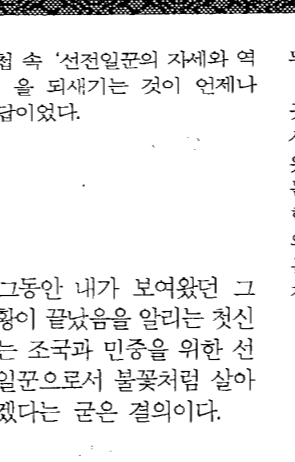
공 경 옥 기자

어느덧 나에게도 이웃님 노동자 이차서의 피로함과, 북쪽 고향을 가진 할머니의 눈물도 가슴속에 새겨져 버렸다. 나의 몸과 마음, 더이상 나만을 위한 존재물이 아닌 이웃 사람들과 주변인식에 대한 사랑으로 변함과 동시에 이러한 것은 신문사로서의 실존적 싸움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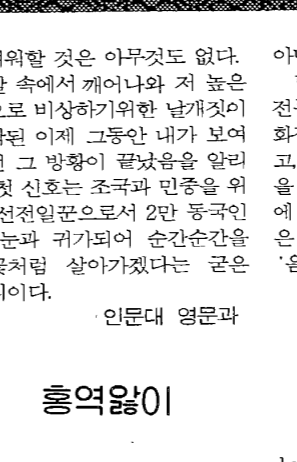
공 경 옥 기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회의 섞인 자문에 '젊은 날 언론전사로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았을 거'라는 대답이 가능해진 지금 주위 사람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전해질때면 난 내가 '식민지 열혈청년학도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며,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대학신문기자'임을 자못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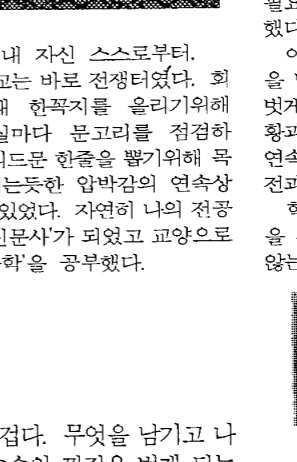
공 경 옥 기자

그동안 내가 보여왔던 그 방향이 끝났음을 알리는 첫 신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선전일꾼으로서 불꽃처럼 살아 가겠다는 굳은 결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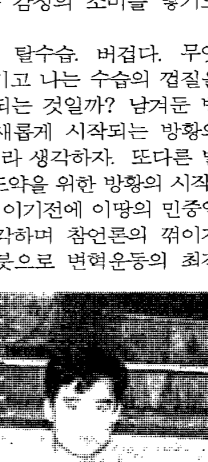
공 경 옥 기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회의 섞인 자문에 '젊은 날 언론전사로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았을 거'라는 대답이 가능해진 지금 주위 사람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전해질때면 난 내가 '식민지 열혈청년학도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며,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대학신문기자'임을 자못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다.



공 경 옥 기자

이러한 변화들이 수습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깨고 진정한 언론전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면 주저하고



공 경 옥 기자

이제 내 자신 스스로부터. 학교는 바로 전쟁터였다. 회견과 한쪽지를 옮기위해 화장실마다 문고리를 점검하고, 리드문 한줄을 땀기위해 목을 찌는듯한 압박감의 연속상이었다. 자연히 나의 전공은 '신문사'가 되었다고 교양으로 '유주학'을 공부했다.

'92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들(2) '한국의 나비'

여름 들날, 노닐며 배추꽃밭을 날던 배추 흰나비를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운 애비꽃 사이를 날던 나비들의 모습은 어린시절의 꿈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날개에 투명한 창이 있고 그 모습이 화려해 수줍을 떠들썩하게 한다는 유리창 락색파랑나비, 단풍나무를 맴돌며 서늘한 자태를 뽐내는 도사치나비, 조밀나무 꽃 사이로 수줍은 듯 날개를 살짝 드러내는 시골치나비, 그 선과 빛이 요염하고 매혹적인 북방기생나비, 날개에 여염말 (A) 자가 깨꾸무 그려져 있는 북방기생나비, 태풍을 타고 남쪽 열대지방에서 날아와 우리 나라에 자리잡은 벌서두리나비, 날개에 커다란 눈물 10개나 가지고 있는 눈물노랑나비 - 우리나라에는 모두 251종의 나비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남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202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나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비가 날던 들과 풀밭에는 경작지가 조성되어 많은 농약이 뿌려지고, 나비의 집인 푸른숲은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색이 바랜 나비 한, 두마리가 우리의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푸른 숲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무를 심고 기꾸어 푸른 숲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푸른 숲, 푸른강의 친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비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곳, 우리 모두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유원개발리는 사회 여러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비를 심어 우리와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푸른 강산을 만들고 기꾸어오고 있습니다. 유원개발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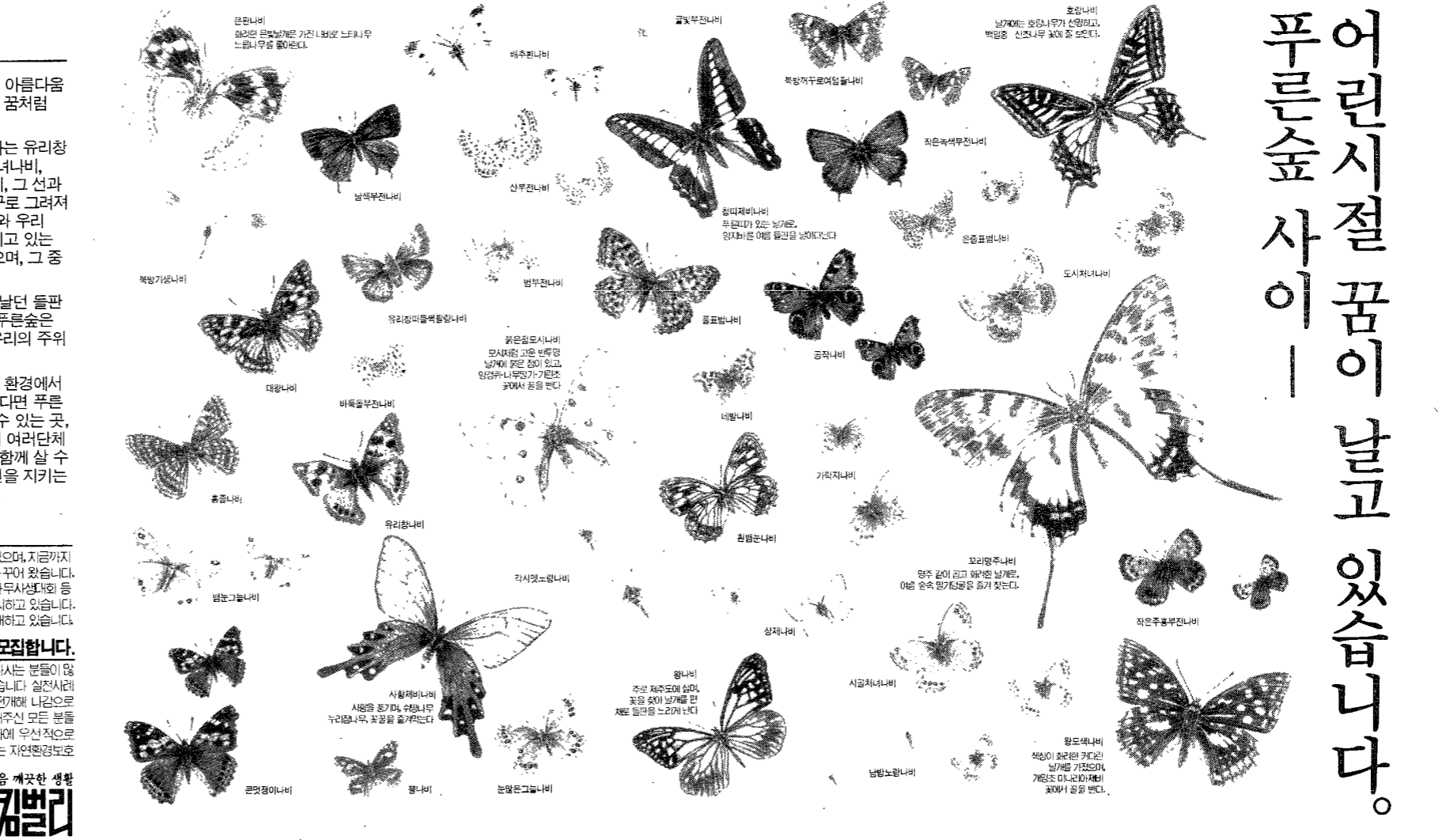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하는 일

- 매년 100만여 마리의 나비를 심고 기꾸는 기쁨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억원의 기금을 통하여 1300만 마리의 나비를 심고 기꾸어 왔습니다.
- 환경정비 나비심기운동, 그린캠프, 나무관찰대, 나무사랑대, 등산코스 환경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개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여러분의 실천사례를 모집합니다.

우리사회에는 자연을 지키고 기꾸어,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원개발리는 그 소중한 실천사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천사례를 보내주시던 신문,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개성행동을 전하며 나랑으로 새 우리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시고, 글을 보내주시던 모든 분들께 기쁨을 보내드리며 유원개발리(가) 개최하는 모든 환경관련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모집된 글들은 환경보존사업'으로 발간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보호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92-09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3 유원개발리 홍보실
문의전화 : 526-1053-9 FAX : 556-1615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원개발리

